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9. 02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
: 성장단계로 본 일본기업의 현위치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위치

① 일본경제지표

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주 전반에는 미국의 시리아 개입예상에 따른 엔 매입수요 증가로 강세, 후반에는 시리아 정세에 대한 경계완화로 약세
- 장기금리 : 연금기금의 대량 국채매입 예상으로 하락세(국채가격 상승)

구 분	8.26(월)	8.27(화)	8.28(수)	8.29(목)	8.30(금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98.70	98.15	97.14	97.85	98.33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1,131.90	1,131.16	1,149.18	1,143.47	1,129.19
넛케이평균주가(종가)	13,636.28	13,542.37	13,338.46	13,459.71	13,388.86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	0.765	0.740	0.715	0.710	0.720

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2013년 7월 실업율은 3.8%로 개선, 특히 여성 실업율이 3.3%로 15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
- 2013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전월비 0.1%로 물가상승기조 진입과 함께 디플레이션 탈출 조짐을 시사
- 2013년 7월 수출은 전월보다 감소한 반면, 수입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1조엔대로 확대

* 對한국 수출, 수입 모두 증가한 가운데, 무역수지 흑자는 축소

구분	2012	2013							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1.2(2.0)	3.8			2.6(P)			-	
수 출(천억엔)	639(637)	48	53	63	58	58	61	60	
수 입(천억엔)	721(707)	64	61	66	67	68	62	70	
對한국 수출	49.7(49.1)	4.01	4.25	5.21	5.07	4.61	4.54	4.77	
對한국 수입	32.8(32.4)	3.12	2.92	2.81	2.58	2.85	2.57	3.04	
직접투자(억달러)	(1,223)	234			331			-	
對한국 투자	(40)	7.7			9.1			-	
소비자물가(전기비상승율,%)	▲0.2(0.0)	▲0.3	0.1	0.3	0.3	0.2	0.0	0.1	
실업율(%)	(4.4)	4.2	4.3	4.1	4.1	4.1	3.9	3.8	
경상수지(천억엔)	42.9(47)	▲3.6	6.4	12.5	7.5	5.4	3.4	-	
엔화 환율	對미달러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	101.0	97.4	99.7
	對원화(100엔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	1,100	1,165	1,130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	12.5	12.4	12.5	
국채금리(10년, 연리%)	0.560	0.740	0.665	0.560	0.600	0.860	0.855	0.795	

주1. ()는 역년(1~12월)기준

2.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3. (P)는 1차 속보치

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Mega FTA시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포괄적 대응 : 통상전략의 관점에서』
경제산업연구소, 8월27일
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pdp/13p016.pdf>

② 주간경제이슈 : 성장단계로 본 일본기업의 현위치

□ 평균적인 성장단계는 안정성장기

- 닛케이신문사가 기업의 재무지표를 사용하여 일본기업들의 성장단계를 조사
 - 기업수익이 최고 수준이던 2007년 이전 5년간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를 시산
 - 수익이 높을수록 성장단계가 전기에 있다고 보고, 순서적으로 이륙기, 성장기, 안정성장기, 성숙기로 분류한 다음, 2007년 시점의 평균기업을 안정성장초기로 가정하여 이후 5년간 변화의 정도를 비교
- 2013년 일본의 상장기업 평균은 안정성장기의 중간정도이며, 전체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남아있기는 하나, 비교가능 한 2,418개 기업 중 657개 기업이 수익을 개선시키는데 성공

□ 소비·인터넷 관련 기업, 이륙기·성장기 단계에 위치

- 이륙기에 있는 기업은 스마트폰용 게임 '퍼즐&드래곤즈'의 대히트로 수익이 급성장한 강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하여 의사용 사이트 회원을 늘리고 있는 엠스리, 일본오라클 등 인터넷 관련기업들이 많음
 - 인터넷 관련 외에도, 소매업 관련 분야에서 일본과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퍼스트리테일링을 필두로 채산성이 높은 PB(자주기획)상품으로 수익을 높이고 있는 로손 등이 이륙기에서 약진하고 있음
 - 고성장과 높은 이익률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실적의 기복이 크고 불안정성도 내포
- 성장기에 위치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1/6정도로, 15기 연속 최고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니트리홀딩스와 아시아 사업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유니참 등 업계 내에서도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이 이 단계에 있음
 -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순풍을 맞고 있는 대형 통신업체 3개사 모두 성장기에 있는데, 그중에서도 애플의 아이폰 판매로 먼저 출발하여 스프린트넥스텔을 매수한 소프트뱅크가 여타 2개사보다도 앞서고 있음
 - 유니참과 소프트뱅크는 소비·인터넷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성장기 기업으로서 높은 매출액증가율, 높은 이익률, 높은 자산효율 등 재무지표 면에서 3박자를 갖추고 수익을 높이고 있음
 - 이들 성장기단계에 있는 기업은 일본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줄 수 있는 차세대 에이스 후보로 아시아시장에서 성장기회를 찾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

□ 안정성장기와 성숙기 단계의 기업들

- 안정성장기에는 코마츠와 히타치제작소,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을 대표하는 핵

심기업들이 많음

- 막강한 경쟁력으로 일본의 GDP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임
- 한편, 보다 후기 단계에 진입한 성숙기 기업들도 있음
 - 일본유센(日本郵船)과 파나소닉 등은 시황 악화나 신흥국 리스크와 같은 경쟁 조건의 변화에 고전하면서 수익이 저하
 - 성숙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, 전략 여하에 따라 다시 수익을 높일 수 있음

□ 전기·전자분야는 폭넓게 분포

- 기업수가 많은 전기업종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여러 성장단계에 분포
 - 무라타제작소, 키엔스 등 전자부품업체들이 높은 경쟁력을 활용하여 약진
 - 제품구성이나 시장점유율, 구조개혁의 진전도 등에 따라 수익 격차가 발생
- 주목을 끄는 것은 성숙도가 높은 업종에서도 성장기 기업이 있다는 점임
 - 미국과 중국에서 농기구 판매를 늘리고 있는 쿠보타, M&A를 발판으로 성장해 온 일본전산 등이 독자적인 성공패턴

□ 재 약진하는 기업들

- 기업들은 급성장기에서 안정, 정체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, 구조조정과 독자적인 사업추진 등을 통해 성장단계에서 재 약진이 가능하고, 성숙기에 이른 중·후·장·대 산업에서도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보다도 수익을 높이는 사례도 많음
- 성장단계로 U턴하는 이른바 재 약진 기업들로서 2가지 유형이 있음
 - 엔고로 위기에 처한 제조업 중에서도 안정성장기 단계로 U턴하는 기업들임
 - 미쓰비시자동차는 일본 국내에서 경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데다, 채산성 없는 유럽지역으로부터의 생산철수 효과 등으로 성숙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
 - 항공엔진 분야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IHI를 비롯, 미국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후지중공업도 안정성장기에서 성장기로 재약진
 -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사업모델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수익을 높이고 있음
 - 산리오의 캐릭터상품 판매에서 라이선스 사업으로 전환, 오리엔탈랜드도 리피터 수요를 발판으로 각각 안정성장기에서 성장기로 되돌아가고 있음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산성 회복을 우선시

- 일본기업들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수비형 경영으로 채산성 회복을 우선시했으나,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비축된 단기 유동성자금을 성장투자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

3 경제정책동향

□ 정상 외교를 통한 중동진출 지원

- 아베 총리는 중동 3개국 방문, 8월 28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카타르 경제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일본기업의 기술력을 홍보
 - 일본과 카타르 양국은 일본의 의료기술 제공, 투자협정교섭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
 - 카타르는 일본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
 - *일본은 원유수입량의 약 10%, 액화천연가스의 20%를 카타르에 의존
 - 아베 총리의 중동 3개국 방문에는 약 50개 기업 및 대학 등이 수행했는데, 이중 일본정부가 성장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료산업 관련기업이 20%를 차지
 - 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의료, 인프라 정비 등으로 저변을 넓혀 국민 공동 대응
- 성장전략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목표를 2020년까지 현재의 3배인 30조 엔으로 설정하였는데, 아베총리는 일본기업의 수주확보를 위해 정상외교를 강화
 - 중동 국가들이 정상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, 아베총리의 방문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업계의 평가
- 아베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동의 발전을 위해 일본이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교육, 인프라, 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민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
 -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여 유대를 강화하면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가능
- 플랜트 건설과 내구소비재 분야는 한국과 중국기업이 선전하고 있고, 의료분야는 미국과 독일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국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닛케이신문은 보도

□ 일본정부, TPP 교섭에서 자유화율을 90%로 높일 방침

- 일본정부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TPP교섭에서, 전체 품목중 일정기간 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비율인 자유화율을 90%로 높일 방침임
 - 당초 각국에 70~80%대의 자유화율을 제시했으나 싱가포르 등 100%에 가까운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교섭국가도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 - 일본이 체결한 FTA의 자유화율은 84%~88%이었으나, 앞으로 90%의 자유화율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농업단체 등 개별 업계단체와 물밑 접촉을 계획
- TPP교섭의 자유화율은 98% 전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
 - 교섭국들이 자유화율을 더 높이라는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정부의 어려운 판단이 예상

4 일본기업동향

□ 일본 반도체기업의 구조변화와 한일간 경쟁

- 일본 반도체기업의 명암이 크게 갈리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사설에서 평가
 - 도시바와 소니가 대형투자에 나서면서 사업확장에 적극적인 한편,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와 후지츠는 사업을 축소
- 이들 각사의 부침을 결정짓는 최대 요인은 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에 통용되는 강한 제품을 가질 수 있는나의 여부
 - 2002년 D램 분야에서 철수한 도시바는 경영자원을 스마트폰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래시메모리 분야에 집중
 - 개발·생산기능을 오키아이치(四日市)공장(미에현 소재)에 통합하여 삼성과 거의 대등한 체제를 구축하고 총 4,000억 엔을 투자
 - 반도체의 미세화기술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8월부터 3차원구조의 메모리 생산을 개시한데 이어, 도시바도 2013년도 말에 샘플을 출하, 2015년도에 양산을 목표
 - 삼성이 기억소자를 24단으로 쌓아올리고 있는데, 도시바는 조금 더 쌓아 비용을 절감할 방침
 - 3차원 제품은 칩 면적당 기억용량을 높이는 한편, 생산효율 향상이 과제인데, 삼성이 양산면에서는 먼저 시작했으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지는 불투명
 - 2012년 NAND형 메모리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삼성이 37%, 도시바가 31%
- 전자의 눈이라 불리는 화상센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제 1위인 소니도 도시바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
 - 게임기용 반도체사업에서 철수하고 원래 강점이 있는 화상분야에 특화
- 반대로 NEC와 히타치제작소의 반도체사업을 통합하여 탄생한 르네사스는 고수익 상품개발에 실패
 - 쓰루오카공장을 매각하려 했으나 설비의 노후화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폐쇄했는데,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임
-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성패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,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임
 - 르네사스는 게임과 통신 등 특정 소수의 일본 국내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, 거래처의 경영부진이 르네사스의 경영실적 악화를 초래
 - 이는 내적인 체질에서 탈피하여 글로벌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찾는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이 기업회생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시사

5 한국관련워치

□ 일본 세가사미, 한일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

- 세가사미홀딩스가 8월 30일 한국정부 및 한국미디어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설립
 - 출자금은 210억 원으로 약 20%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세가사미측이 부담하고, 한일 양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아시아 및 세계 무대에서 통용되는 애니메이션을 육성할 계획
- 설립될 「CL애니드림투자조합」은 한일 기업에 의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용 펀드로서, 참가기업들이 기획하는 애니메이션 외에도 한일 기업들이 제작하는 작품에도 출자하며 7년간 10~15개 작품을 목표
- 펀드에는 한국정부가 출자한 한국벤처투자가 120억 원을 출자하고 세가사미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여하는 자회사 톰즈엔터테인먼트에 출자하는 한편, 한국 관련 기업 4개사가 나머지 50억 원을 부담
 - 세가사미는 펀드가 출자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관련 상품을 그룹 내에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

□ 미니스톱, 한국 내 점포수를 일본수준으로 늘릴 계획

- 일본계 편의점인 미니스톱이 2015년까지 한국의 점포수를 현재 2,200개에서 2,500개로 늘릴 계획
- 한국의 미니스톱은 해외사업에서 중심에 위치
 - 그러나 규모면에서 미니스톱은 한국 내 8,000개 체인점 중 선두주자인 패밀리마트 등 여타 일본계 대형체인점이나 한국계 체인에 비해 열세
 - 아시아지역에 있는 미니스톱의 해외점포수는 2012년에 일본을 상회하였으나, 2013년 7월말 시점에서 한국은 1,900개 점포로 해외점포의 80%가 집중
 - 한국의 약 24,000개 편의점 중 미니스톱은 4번째로 많으나, 점포당 일일 평균 판매액은 2012년에 140만원(약 124,000엔)으로 상위
 - 2012년도에는 수익이 2% 감소한 일본에 비하여 한국은 9% 증가하여 점포망이

확대된 이유

- 2013년 이후에는 매장이 협소하고 채산성이 없는 점포를 폐쇄하고 대형 신규 점포를 매년 200~300개씩 입점
 - 신규점포에는 10석 정도의 시식코너를 설치하고 취급품목수도 2,000~2,200개로 40% 늘려 일본의 표준점포(약 3,000개)에 근접시키는 등, 한국에서도 젊은 층을 겨냥한 1인용 식사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

□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문제는 없는가?

- 닷케이는 8월 28일자 칼럼 기사「大機小機」에서 한국의 외환준비고가 7월말 현재 약 3,300억 달러로, IMF가 단기대외채무와 대내투자잔고에 기초하여 정한 기준치의 130%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
 - 이 수준은 최근 미국의 금융완화 출구전략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인도의 180%, 인도네시아의 165%보다도 낮음
- 한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3,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외환준비고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, 외화유출에 대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
- 만일을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협정이 준비되어 있었는데도, 한국이 기한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융통 가능액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
 - 이와 관련하여, 본심을 털어놓고 실정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따름이라고 닷케이신문은 전하고 있음